

광주도시공사, SK 격파...준PO 예비고사 기선 제압

19일 준플레이오프 맞대결 앞두고 핸드볼 리그서 29-27 승리 젊은 선수들 대거 기용 효과...정현희 8골·이슬기 5골 맹활약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준플레이오프 전 망을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6일 열린 정규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SK슈가글라이더즈를 29-27로 꺾었다.

광주도시공사는 SK와 시즌 최종 전적 1승1무1패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준플레이오프 전 초전에서 승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규리그 4위를 확정된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9일 리그 3위 SK와 준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다.

양 팀은 16-16으로 전반전을 마쳤다.

오세일 감독은 후반에 주전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들이는 등 전력을 재편성했다.

권민지, 방민서, 이슬기, 박지영, 문세린 등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다. 정규리그 4위를 확정된 후 치르는 경기라는 점도 감안, 젊은 선수들을 배려한 것이다.

SK슈가글라이더즈 박성립 감독도 교체카드로

반전을 노렸으나 경기력에서 광주도시공사가 앞섰다.

정현희와 이슬기가 눈길을 끌었다. 정현희는 8골로 MVP에 선정됐고, 후반전에 투입된 이슬기는 5골을 넣어 성장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골키퍼 손민지는 후반에 젊은 선수들을 이끌며 11세이브, 방어율 50%를 기록, 광주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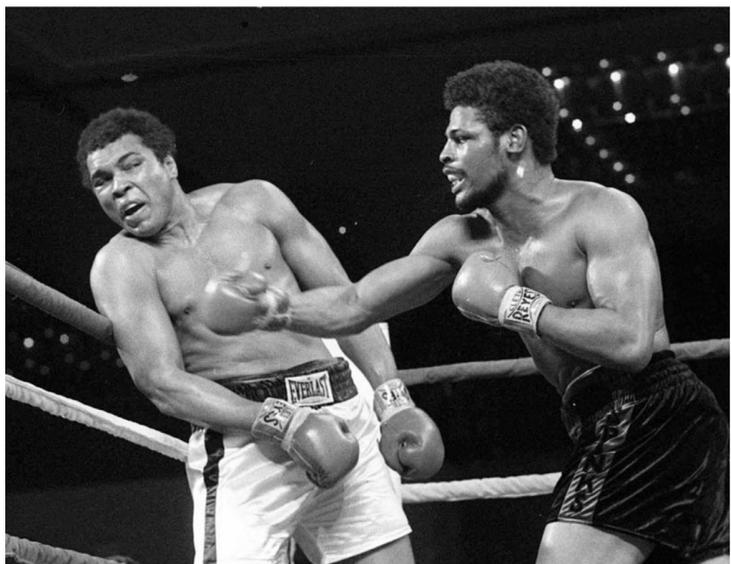
오세일 감독은 "준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펼쳐진 SK와 경기에서 선·후배들이 모두 열심히 뛰 덕분에 이길수 있었다"며 "경기에서 드러난 단점을 보완하고 남은 기간 상대팀 SK슈가글라이더즈의 경기 내용을 분석해 준플레이오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8일 오후 7시40분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강경민(광주도시공사)이 지난 6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SK슈가글라이더즈전에서 슈트를 날리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1978년 열린 헤비급 타이틀 매치에서 리언 스팅크스(오른쪽)가 무하마드 알리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알리 꺾은 전 헤비급 챔피언 스팅크스 별세

전립선 암 등 수년간 투병

복싱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를 꺾었던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 리언 스팅크스가 지난 7일(한국 시간) 숨을 거뒀다. 향년 68세.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과 폭스뉴스는 7일(한국 시간) 스팅크스의 대변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스�팅크스는 전립선암을 포함해 각종 암으로 수년간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마우리시오 솔라리만 세계복싱평의회(WBC)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편히 잠드소서"라며 "고인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팬아메리카 메달리스트, 그리고 전 WBC 헤비급 챔피언이었다"고 애도했다.

스�팅크스는 1978년 2월 알리를 15라운드 끝에 판정승으로 꺾었다.

프로 데뷔 7전의 꽃이 스팅크스가 '더 그레이 이티스트'로 불렸던 무적의 왕자 알리를 꺾고 챔피언에 오르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알리를 제압한 스팅크스의 반란은 지금까지도 복싱 역사상 최대 이변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그때가 스팅크스 선수 인생의 최대 하이라이트였다.

스�팅크스는 켄 노턴과의 방어전을 거부해 WBC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스팅크스는 대신 알리와 재대결을 선택했다.

같은 해 9월에 성사된 재대결에서 스팅크스는 알리에게 심판 전원일치 판정패를 당했다.

스�팅크스는 다시 한번 WBC 타이틀에 도전했으나 1981년 6월 래리 흄스에게 3라운드 TKO 패로 무너졌다.

스�팅크스는 42세의 나이로 은퇴했다. 프로 통산 전적은 46전 26승(14KO) 3무 17패다.

스�팅크스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선 라이트헤비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인의 동생인 마이클도 다른 체급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마이클은 1985년 흄스를 꺾고 형의 복수를 대신 했으나 3년 뒤 마이크 타이슨에게 패했고, 그게 마지막 경기가 됐다.

/연합뉴스

장타자 왓슨, 파3홀서 드라이버 티샷 '화제'

피닉스오픈 프로암 대회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장타자로 손꼽히는 바바 왓슨(미국)이 파3홀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날린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PGA투어는 5일(한국 시간) 왓슨이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TPC 스코츠데일 16번 홀(파3)에서 드라이버로 티샷하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곳에서 열린 PGA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 경기가 아닌 4일 프로암 대회에서 찍은 영상이다.

핀까지 거리는 피칭웨이브 9번 아이언으로 칠거리인 150야드에서 왓슨은 드라이버를 들고 티박스에 올랐다.

헤드와 샤프트가 모두 분홍색이라 웬만한 골프팬들은 다 아는 그 드라이버였다.

왓슨이 4분의 3 스윙으로 가볍게 친 볼은 놀라게도 그린에 안착했다. 골프워크는 160야드를 넘지

않아 웨지만큼 거리를 정확하게 맞췄다고 전했다.

왓슨은 왼손을 흔들며 관중의 환호를 유도했다.

TPC 스코츠데일 16번 홀은 티박스에서 그린까지 운동 관람 스탠드로 딱 차 있어 '콜로세움'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평소라면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스탠드를 메우고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질렀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하루 입장객을 5000명으로 제한한 탓에 환호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신나는 음악 소리와 장내 아나운서의 호들갑스러운 코멘트로 열기는 제법 달아올랐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 친 드라이버샷이지만, 독학으로 골프를 배우고도 입이 딱 벌어지는 기술 샷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왓슨의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대회 1라운드에서 왓슨은 16번 홀에서 그린에 볼을 올리지 못했고, 두 번째 샷을 잘 붙여 파를 지켰다.

/연합뉴스

다카나시 스키점프 우승 월드컵 58승으로 최다승

다카나시 사라(25·일본)가 국제스키연맹(FIS) 스키점프 월드컵에서 약 11개월 만에 우승했다.

다카나시는 7일(한국 시간) 오스트리아 힌텐바흐에서 열린 2020-2021 FIS 스키점프 월드컵 여자부 노말힐 개인전에서 1, 2차 시기 합계 238.4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2위 니카 크리즈나르(슬로베니아)의 238.0점을 0.4점 차로 제친 다카나시는 지난해 3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대회 이후 약 11개월 만에 월드컵 왕좌에 복귀했다.

이로써 다카나시는 월드컵 대회에서 58차례 우승을 달성, 자신이 보유한 스키점프 월드컵 최다 우승 기록을 1승 더 늘렸다. 다카나시에 이어서는 남자부 그레거 알렌자우어(오스트리아)의 53승이 최다 우승 기록이다. 여자부 2위는 30승의 마렌 룬드비(노르웨이)다.

/연합뉴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 감사패 받아



전남도체육회 김재무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도체육회는 지난 4일 전남체육관에서 김재무 회장,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이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재무 회장은 축구 전국대회 및 전남지역 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 전남축구발전에 기여했다.

전남축구는 지난해 한국 중등축구연맹회장배 중등 축구대회, 제22회 문체부장관기 전국 풋살대회, 청소년 축구국가대표팀 전지훈련 유치 등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김재무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도체육회와 전남축구협회의 업무 협조로 다수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한 값진 결과"라며 "올해도 전국대회와 전남지역 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해 지역 경제발전과 축구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돕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2관	소울
3관	에니스트 씨프, 해피 투게더
4관	소울
5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6관	소울
9관	소울,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
7관 세레커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 세상의 모든 디지털: 러브 시라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
8관 세레커	세지매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GAC기획공연 포시즌즈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